

<서평>

## 『시편 주석 III』

김정우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848쪽

하경택\*

### 1. 의의

구약성서 가운데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많은 내용 때문에 한 사람이 전체 시편을 모두 주석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국, 내외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시편 전체를 주석한 예는 많지 않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까지 시편 전체에 대한 학문적인 시편 주석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바이저(A. Weiser), 다후드(M. Dahood), 크라우스(H. J. Kraus), 클리포드(R. J. Clifford). 필자가 아는 대로 말하면 국내 학자 가운데 시편 전체를 학문적으로 주석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 주석 III』이 출간되어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이 완결되었다는 사실은 의의가 크다. 국내학자로서 시편 전체를 학문적으로 주석한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의 성서 연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남다르다. 대한성서공회 문헌정보실에 가면 언제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로지 연구를 낙으로 삼고 사는 학자다운 학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연구에 정진하는 그의 모습은 연구 결과로 나타난 그의 저작물들로 확인된다. 수많은 논문과 글들은 제외하고 주요 저서들만 언급한다면, 그는 2002년과 2003년에 『구약통전 I, II』(서울: 이레서원, 2002/2003)이라는 대작을 마무리하였다. 2007년에는 『잠언』 주석을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시리즈 제19권으로 발행하였다. 특별히 2007년에는 투병생활을 하였음에도 성서에 대한 연구 열정은 식지 않았고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실존적 체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완성도 높은 주석 작업을 수행하여 『시편 주석 I, II, III』(1998/2005/2010년)을 완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성실성은 모든 성서학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 2. 『시편 주석 III』의 특징들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 I, II, III』을 한 눈에 놓고 보면, 세 권이 한 권의 책으로 잘 묶일 수 있도록 기획이 잘 되어 있다. 시편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주석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제1권의 서론부에서 시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1) 시편의 명칭과 정경에서의 위치, 2) 시편의 수와 절 구분, 3) 시편의 본문 비평, 4) 시편의 형성 과정과 구조, 5) 시편의 표제, 6) 시편의 저작 연도, 7) 시편 해석 방법론, 8) 시편의 저주와 정경적 해석, 9) 히브리시의 성격과 특징.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9장의 ‘히브리시의 성격과 특징’은 히브리시의 특징들을 잘 갈무리하여 주고 있어 독자들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앞부분에 배치한 주요 참고문헌과 약어표는 시편 연구서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시편 주석 I』에서는 시편 1-41편까지 시편 제1권에 해당하는 시편들을, 그리고 『시편 주석 II』에서는 시편 42-89편까지 시편 제2권과 제3권

에 해당하는 시편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번에 발행된 『시편 주석 III』에서는 시편 90-150편까지 시편 제4권과 제5권에 속한 시편들을 주석하고 있다.

개별 시편들에 대한 주석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구성으로 진행된다. 개별시편에 대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번역, 2) 형식, 구조, 배경, 3) 주석.

먼저 “번역” 부분에서 주석자 개인의 번역을 보여준 후, 각 시편의 이해를 위한 필수사항들인 “형식, 구조, 배경”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각 시편의 문학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이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본문 주석” 부분에서는 시편의 구절들에 대한 주석자의 해설이 들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개인 “번역”이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자연스런 우리말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가 번역한 시문은 독자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개역이나 개정개역이 주었던 육중함과 딱딱함이 눈이 녹아 땅 속에 스며들듯이 저자의 번역에 녹아 있다. 우리말로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시의 느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번역에 힘쓴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다. 특별히 저자의 번역에서 특기할 사항은 시편의 상황에 따라 어법을 달리하여 번역하여 각 시편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시편 90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도 그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본문의 내용을 일관되게 존대어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존대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인이 다짐하는 형태의 말로서 본문의 내용을 번역하고 있다. 본문 번역에서 이미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확신과

믿음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시편 92편은 다시 존대 어법으로 번역되었다. 왜냐하면 시편 92편은 지존하신 여호와께 말하는 시인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문 번역만 보아도 시편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느낄 수 있으며, 시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번역에서부터 저자의 세심한 노력과 독자들을 위한 배려가 묻어난다.

둘째로, 각 시편의 분석에 앞서 저자의 간명한 서술을 통해 해당 시편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각 시편에 대한 저자의 시각과 통찰이 빛난다. 예컨대, 시편 104편에 대한 저자의 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한 조와 세계이다. 하늘에는 구름이 뚝뚝 떠다니고 바람은 솔솔 분다. 땅은 태초로부터 든든히 서 있고 바다는 그 경계를 넘지 않는다. 강들은 산골짜기를 감싸고 돌며 목동들의 피리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중략) 시인은 정감이 넘치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느끼는 깊은 평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는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 배후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은총과 영광을 노래한다. 서정적 관점에서 볼 때, 104편은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창조 신앙을 독창적인 시어(詩語)로 쏟아내고 있다.”(213쪽)

이뿐 아니라 저자는 해당 시편이 과거적 의미로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시편 121편에 대한 언급에서는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한 네일 암스트롱(Neil Alden Armstrong)이 이 시를 낭송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주인공 마리아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읊조린 예를 소개한다(516쪽). 저자의 이러한 평가와 분석은 해당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시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셋째로,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저자는 각 항목마다 중요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특별히 “형식, 구조, 배경” 부분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 가운데에서도 주요쟁점들과 핵심적인 사항들이 잘 소개되어 있어, 다른 학자들의 견해가 무엇인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시편 148편의 구조에 관한 설명에서 두 단락으로 구분하는 학자들(앤더슨, 크라우스, 알렌, 파니르, 웨퍼, 힐러스 등)과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 학자들(반 게메렌, 가스텔리노 등), 그리고 네 단락으로 나누는 학자들(다후드, 뜨루블, 게르스텐버거 등)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고 있다(790-791쪽). 그리고 난 후 저자의 입장을 밝힌다. 이런 방식의 설명은 해당 시편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알 수 있게 하고, 저자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은 한 권의 책으로 십 여권의 시편 주석을 본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한다. 그만큼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와 통찰들이 이 한 권의 책 안에 집약되어 있다.

넷째로, 시편에 대한 구성적 분석(editorial approach)으로 시편의 문맥적 의미까지 전해준다. 시편의 구성적 분석은 시편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시편집 안에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떤 시편의 구성적 위치가 주는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시편 연구가 보여주는 흐름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시편 간의 연결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편 구성이 보여주고 있는 시편 신학도 알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시편 연구자들이 야훼의 토라를 강조하는 토라 시편들의 위치와 제왕시편들의 위치 등에 주목하면서 최종적인 편집자의 의도를 찾고자 한다(참조, 김성수, “시편에도 문맥이 있는가?” 『개혁논총』 5 (2006), 1-9). 차일즈(B. S. Childs)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주제가 시편 전체를 묶는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초기에 인간

왕의 통치를 통해서 땅의 용어로 표현되던 하나님의 통치가 후대의 시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고 말한다. 윌슨(G. H. Wilson)은 시편 성경의 배열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행(1-72편), 그 언약의 파괴(73-89편)와 회복(90-150편)이라는 최종 편집자의 관점을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 가운데 그는 자신의 시편 주석(NIV Application Commentary) 집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이 저자의 시편에 대한 구성적 분석에서 잘 나타나 있다. 시편 109편에 대한 서술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시편 108편과의 관련성을 말한다. “구성적 관점에서 보면, 108편은 ‘그가 우리의 대적들을 짓밟을 것이다’로 끝났다(13절). 이제 109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도록’ 기도하면서 시작한다(1절). 앞의 시편에서는 에돔이 대적이었으나, 이 시편에는 명시되지 않은 대적들이 시인을 위협하고 있다(20절). 두 시인은 함께 주님의 도움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다(108:13; 109:30-31).”(335쪽) 또한 시편 148편에 대한 설명에서도 시편 147편과의 연관성 속에서 시편의 의미를 밝혀준다. “구성적 관점에서 볼 때, ‘할렐루야’(hallelu-yah)가 146편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147편을 열어주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1절)는 148편을 닫아주는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14절)와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147편에 나온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여러 요소들로서 ‘눈, 서리, 우박, 바람’(16-17절)은 본 시편에서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를 받고 있다(8절).”(793쪽) 이렇듯 어떤 시편이 하나의 시편으로서만 의미를 갖지 않고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시편과의 연관성 속에서 시편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시편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다섯째로,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 돋보인다. 저자는 단순히 히브리 낱말들의 사전적 의미만을 밝혀주지 않는다. 어떤

히브리 낱말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쓰임새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저자가 알고 있는 단어의 특별한 의미까지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시편 90편에 사용된 ‘쿰’(קום)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전적인 의미인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밝혀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낱말의 용례가 바로 앞 시편에 사용된 ‘창조 용어’(시 89:2)와 ‘언약 용어’(시 89:4)와 연결된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 낱말은 ‘이미 창조한 것과 시작한 것을 다지고 세울 때’ 사용된다고 설명한다(39쪽). 또한 어떤 표현을 설명할 때 구약성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전통들을 연결시킨다. 시편 91편에 대한 주석에서 ‘어떤 재앙도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10절)라는 선언은 출애굽 전 날 유월절에 이집트를 휩쓸었던 ‘죽음의 사자’를 연상시킨다고 말하면서, 본문을 출애굽기와 연결시키고 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시인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12절). 여기의 ‘하나님의 사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한 주님의 임재를 암시해 준다(사 63:9; 출 13:22; 14:24; 19:4; 느 9:12, 19). 하나님은 시인의 ‘피난처’가 될 뿐 아니라, ‘길’이 되어준다는 점이 특이하다(11-12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길에서 체험한 사건들을 반영해 준다.”(46쪽). 이와 같은 설명은 시편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성서 안의 다른 본문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시편 133편의 구조에 관한 설명에서도 히브리어 본문을 볼 때만 파악할 수 있는 점들을 밝혀준다. 저자는 이 시가 ‘형제’(ahim)로 시작하여 ‘영생’(haim)으로 마치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우리말로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두 낱말이 왜 하나의 시편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지를 해명한다. “이 두 단어는 원어에서는 발음이 너무나 유사하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627쪽)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서’(shama)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2절의 ‘기름’(shemen)이라는 낱말과 음성학적인 유사성을 지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저자는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깊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본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전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로, 동양고전을 인용하여 구약성서의 시편이 동양사상과 대화하게 한다. 저자는 시편이 한시뿐만 아니라 동양의 경전들과 만날 수 있도록 곳곳에서 동양의 문헌들을 인용한다. 이러한 인용과 설명을 통해 시편을 동양적 관점에서 읽게 한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시편이 서구중심의 해석범위를 벗어나 동(東)아시아의 특별한 상황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시편 90편 해석에서 ‘흰 말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홀연히 사라지는 인생’(人生天地間 若白駒之過隙 忽然而已; 知北遊)이라고 말한 장자(莊子)의 말을 인용하여 인생무상의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23쪽). 시편 146편에서도 인간의 영광과 헌신은 ‘열흘을 가지 못하는 꽃’(花無十日紅)과 같다고 하면서 인생을 ‘돛대 높이 세우고 이 밤을 홀로 떠나는 배’(危檣獨夜舟)와 ‘하늘과 땅 사이 외로운 한 마리의 갈매기’(天地一沙鷗)라고 말한 두보(杜甫)의 말을 인용한다. 더 나아가 인생을 ‘석양은 한없이 아름다운데 다만 황혼에 가깝구나’(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라고 말한 이상은(李商隱)의 글을 소개하고 있다(766쪽). 시편 101편과 시편 136편에 대해서는 제목을 각각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꽤지나 칭칭나네’라고 명명하여 각 시편의 내용과 구성적 특징을 유교적 문화권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이해하게 한다. 이것은 시편의 내용을 고대중동의 문헌과 비교 연구하는 것과 견줄 수 있다. 고대 중동문헌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시편의 생성 문제를 밝히는 것과 관련되지만, 시편의 내용을 동양 경전이나 한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시편의 적용을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위와 같은 특징들은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이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일 뿐 아니라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 시편 전공자로서 한 길을 걸어 온 저자의 학문 이력과 남다른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다.

### 3. 제언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필자가 느낀 아쉬운 점과 바람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히브리어 음역이 그냥 괄호 안에 영문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별다른 표시 없이 영문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영어 낱말들과 형태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눈’과 ‘발’은 합성어(merismus)로서 ‘목숨’(nepesh)에 대한 수식어구이다”라는 언급에서 괄호 안에 표기된 영문은 히브리어 음역인지 영어 단어인지 형태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415쪽). “‘말씀’(amar)은 ‘약속’(promise)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어울린다”는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475쪽). 괄호 모양을 달리 하던지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음역은 이탤릭체로 바꾸었다더라면 좀 더 눈에 쉽게 띄어 읽고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말 음역과 더불어 히브리어 단어를 히브리어 문자로 표기해 독자들에게 가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각 시편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가 첨가되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본 시편 주석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번역], [형식, 구조, 배경], 그리고 [주석]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격적인 시편분석에 앞서 각 시편에 대한 저자의 이해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각 시편에서 파악한 신학적 메시지를 따로 분류하

여 좀 더 분명하게 시편의 의미를 밝혀 주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주석가의 과제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럼에도 저자의 탁월한 분석과 이해를 기초해서 각 시편에 담겨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더라면 독자, 특히 본문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독자들은 단순히 본문의 해명(解明)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이 주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를 원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시편의 수용사(Rezeptionsgeschichte, reception history)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어떤 본문이 후대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본문의 수용사 연구이다. 저자가 시편의 사용에 대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떤 시편이 계속 전수되고 해석되는 과정에서 문학이나 철학, 더 나아가 각종 예술 분야에 어떻게 수용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시편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시편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시편의 영향사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시편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시편의 수용사만 기술해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점들이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들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끝으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과 가치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이 책을 구입하여 직접 읽어보는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평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